



가짜가 만들어낸 진짜, 관광문화에서 진정성의 다양화: 신고촌 그리스도의 무덤 사례를 중심으로

오카모토 료스케 홋카이도대학

이 글의 목적은 진정성의 관점에서 현대 관광문화의 창조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지의 매력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진정한지는 그 장소의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관광객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력을 찾아 관광지에 오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분명히 가짜'인 것을 관광상품으로 삼은 아오모리 현(靑森縣) 신고촌(新鄉村)의 '그리스도의 무덤'에 주목한다. 신고촌은 사실(史實)과는 다른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진흥을 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도 관광 자원의 위물성(僞物性)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것도 아니다. 인터뷰를 통해, 지역 주민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대해 주관적 진정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마을이나 조상 등 상상의 공동체와의 유대, 그리고 이에 대한 애착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무덤이 지닌 진정성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진정성, 관광문화, 신고촌 그리스도의 무덤, 위물성(僞物性)

I. 문제의 소재

이 글에서는 아오모리 현(靑森縣) 산노헤 군(三戸郡) 신고촌(新鄉村)의 '그리스도의 무덤' 관광에 대해 진정성(authenticity)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을 주민이나 관광객 대부분은 신고촌의 그리스도 무덤을 가짜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명백히 가짜'인 무덤을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을 관광지로 이끄는 관광 자원이 '진짜인지 아닌지의 여부', 나아가 '어떠한 의미에서 진짜인지'와 같은 진정성이 그 장소

의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고생스럽더라도 그곳을 찾는다.

특히 역사와 관련된 관광지의 경우 관광 대상이 원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정비가 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거쳤는지와 같은 역사적인 진정성이 그 관광지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진정성은 일반적인 관광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관광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예컨대 불교의 성지인 부다가야(Bodh Gaya)나 천주교 3대 순례지 중 하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는 모두 19세기에 발견되었다. 그 발견에 이어 발굴작업과 고고학적 조사가 행해졌다는 사실은 성지의 형성에서 역사적인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¹

좀 더 최근의 사례로는 2013년 11월 바티칸에서 ‘성 베드로 유골’이 공개된 것을 들 수 있다. 천주교의 성유물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이 가짜다. 그러나 성 베드로 유골의 공개에 앞서 거의 80년에 걸쳐 지하 무덤의 발굴작업과 조사가 진행되었다. 즉 역사학적, 고고학적 진정성이 성유물의 성화(聖化)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지금까지 진정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다. 에드워드 브루너(Edward Bruner)는 역사유산 투어리즘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진정성을 다음의 4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①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진정한 복제, ② 학술적으로 보아서 완전무결한 복제, ③ 어떠한 복제도 아닌 진짜, ④ 어떠한 권위나 법에 의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것. 다시 말해 진짜가 얼마나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는가가 중요하다(Bruner, 2004).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글이 주목하는 신고촌 그리스도의 무덤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 애초부터 위서(僞書)가 계기가 되어 생겨난 장소이며,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역사적이고 학술적인 진정성, 즉 객관적인 진정성을 포기한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의

¹ 각 성지의 형성에 대해서는 前島訓子(2012) 참조.

² 현대 가톨릭 성지관광에서 성유물의 위상을 고찰한 것으로는 岡本亮輔(2015) 참조.

무덤 관광인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무덤은 수상한 가짜 관광지, 상업주의적 관광지라고 비판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과 같이 관광의 공식 무대와 그 이면에서 지역 주민의 이야기가 크게 변화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무덤의 관광화 과정에서 객관성이 아닌 진정성이 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신고촌의 그리스도 전설

신고촌(구 헤라이 촌(戸来村))은 아오모리 현 남부에 있다. 중핵도시인 하치노헤 시(八戸市)에서 도와다 호(十和田湖)로 이어지는 국도를 타고 서쪽으로 약 30km 가면 동서로 길게 펼쳐진 신고촌이 나타난다. 신고촌에는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으며, 인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6년 3월 현재 2,679명(942호)이다. 이처럼 작은 마을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리스도 전설은 근대 일본 역사상 위서로 이름이 높은 『다케우치 문서(竹内文書)』에서 유래한다.

『다케우치 문서』는 쇼와(昭和) 전기에 융성한 아마츠 교(天津教)의 교전이다. 『다케우치 문서』는 아마츠 교를 일으킨 다케우치 기요마로(竹内巨鷹, 1875~1965년)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문서에는 정사(正史)와 다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의 대부분을 다케우치 기요마로가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사상사 연구자인 구메 마사후미(久米晶文)에 따르면 『다케우치 문서』는 “이를 접한 사람들의 자아를 먹고 성장해 가는 환수(幻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적 유출자(流出者)다.”라는 세계관에 근거해서 기술되었다(久米晶文, 2012: 500-502). 예컨대 석가모니나 공자, 맹자, 복희(伏羲), 모세와 같은 세계적인 성인들도 일본에서 수행했다고 한다.

『다케우치 문서』의 이러한 기술은, 근대 이전의 일본이 열등감의 대상이던 중국과 근대 이후에 일본의 본보기가 된 구미 문화의 정신적 근원이 실은 고대 일본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열관계를 전도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의 맹주라는 사고 틀에 ‘신약성서’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했



출처: 저자 촬영.

그림 1 신고촌의 그리스도의 무덤

던 물적 증거가 신고촌의 그리스도의 무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스도의 무덤이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34년 10월, 당시 헤라이 촌의 촌장이던 사사키 덴지로(佐々木傳次郎)의 의뢰로 도야 반잔(鳥谷幡山)이 도와다 호 주변을 답사하게 되었다. 도야 반잔은 아오모리 현 출신의 일본화(日本畫) 작가이며, 도와다 호 등 향토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했다. 구메는 사사키가 자신에게 답사를 의뢰한 이유로 그 당시에 도와다 호 주변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헤라이 촌의 지역 부흥을 위한 홍보탐으로 자신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久米晶文, 2012: 502).

그러나 사사키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도야는 『다케우치 문서』를 읽었으며 그 세계관에 공감하고 있었다. 도야는 헤라이 촌에 와서 의뢰 받은 대로 답사를 하지 않고 아주 먼 옛날 헤라이 촌 인근에 신의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조사를 했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야는 오이시가미 피라미드(大石神ピラミッド)를 발견하고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다케우치 기요마로에게 헤라이 촌 방문을 요청한다. 이듬해인 1935년 8월 다케우치 기요마로가 헤라이 촌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때 얻은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무덤

인 ‘도라이즈카(十来塚)’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관련된 전설이 신고촌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신고촌에서 멀리 떨어진 이바라키 현(茨城県)에 근거지를 둔 종교단체의 위서에 근거하여 갑작스럽게 발견된 것이다. 즉, 그리스도 전설은 신고촌에서 예로부터 전해져온 것이 아니라 마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케우치 문서』에 근거한 신고촌의 그리스도 전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신약성서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30대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시기에 그리스도는 일본에 와 있었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21세에 현재의 이시카와 현(石川県) 부근에 상륙하여 아마츠크니(天国)³의 언어인 일본어를 배우고 신학 수행에 매진했다. 그리고 33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일본에서 배워온 가르침을 전하나, 그 행위가 유대교 장로들의 노여움을 사서 십자가책형으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처형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생인 이스키리(イスキリ)였으며,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무사히 동쪽으로 돌아났다. 그리스도는 시베리아를 거쳐 하치노헤 항에서 일본에 상륙한 다음, 무덤이 있는 헤라이 촌 사와구치(沢口)를 최종 거처로 정하고,⁴ 이름도 도라이 타로 다이텐쿠(十来太郎大天空)로 개명했다. 그리고 미유코(ミユ子)라는 20세 여성과 결혼하여 딸 셋을 키우고 106세에 세상을 떠났다.

『다케우치 문서』 그 자체는 1930~1940년대에 발생한 아마츠 교 탄압사건과 다케우치 기요마로의 불경사건(不敬事件) 과정에서 몰수당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본의 패전 직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문서의 대부분은 도쿄 대공습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 『마이니치 그래프(毎日グラフ)』(1973년 12월 23일호)는 신고촌에서의 그리스도 전승을 취재했다. “신·일본여행(新·にっぽん旅行)”이라는 시리즈 기

³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사는 천상의 나라(역자 주).

⁴ 이와 같은 전설이 있기 때문에, 하치노헤 시에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사가 존재한다. 가이구라이나리 신사(貝鞍稲荷神社)에는 “전(傳)·그리스도 일본 상륙 최초의 숙박지”라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다. 팻말에는 그리스도 전설에 대한 향토사 연구자의 해설이 덧붙여 있다.

사에서 “그리스도는 일본에서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다케우치 문서』에 근거한 그리스도 전설과 더불어 신고촌의 독특한 관습이 소개되었다. 어린이를 처음 집 밖으로 내보낼 때 솟으로 이마에 십자를 그리는 풍습이나 농사를 지을 때 ‘하라테(ハラテ)’라고 불리는 독특한 옷을 입는 관습, 히브리어로 구성된 신고촌의 본오도리(盆踊り)인 나냐도야라(ナニャドヤラ)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쓰인 『마이니치 그래프』의 기사조차도 신고촌의 그리스도 전설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간주하며 놀림조로 소개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신고촌에는 기독교도가 없다는 사실을 농담처럼 언급하며, 주민 또한 이 마을에는 전승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한 사실을 덧붙였다.

그 후에도 그리스도의 무덤은 수많은 오컬트(occult)계 잡지나 소설 시리즈,⁵ 만화책 등에서 제재(題材)로 사용되고 모든 작품에서 전기(傳奇)나 기습(奇習)으로 다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부터 개인이 인터넷으로 관광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신고촌 그리스도의 무덤도 B급 관광 명소로 웹사이트에 소개되고 있다.⁶

어쨌든 신고촌의 그리스도 무덤은 발견된 지 8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기원은 위서에 근거함이 분명하며 현재까지 그 진정성을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III. 그리스도의 무덤과 그리스도 축제⁷

신고촌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에 따르면 어릴 적 소풍으로 그리스도의 무덤을 방문했으나 덩불 속에 흙으로 만든 무덤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또한, 신고

⁵ 예컨대 齋藤榮(2012) 참조. 이 밖에 그리스도 전설과 여러 전기를 결부시킨 작품으로 다카하시 가즈히코(高橋克彦)의 “용의 관(竜の枢)” 시리즈(1989~2006)가 있다.

⁶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언급한 전형적인 사례로 『郷土LOVE』(みうらじゅん, 2012), 『わびれもの』(小坂俊史, 2010) 등이 있다.

⁷ 이하의 데이터는 필자가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년 그리스도 축제가 개최되는 6월을 중심으로 1주일 정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임원들, 마을 부흥을 주도하는 유지단체, 헤라미타케 신사(戸来三嶽神社)의 신관, 관광객을 중심으로 문답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마을이 주최하는 모니터 투어에 참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촌 관광과 직원에 따르면 마을 부흥을 위해 그리스도 전승과 관련되는 물품 제 공을 부탁하러 돌아다닐 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전쟁 시기를 마을에서 지 낸 사람들 중 ‘그리스도의 무덤을 받드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독한 일 을 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직원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 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무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오컬 트가 유행하면서부터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국도에서 언덕으로 조금 올라간 곳에 있다. 그곳에는 흙 무덤 두 개가 나란히 있다. 한쪽은 그리스도의 무덤인 도라이즈카,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처형된 동생 이스키리의 유발 등을 매장한 주다이 보(十代墓)라고 전해진다. 2000년경부터 무덤 주변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고 장 공원(キリストの里公園)’으로 정비되고, 신고촌의 출자로 ‘신고촌 고장 활성화 공사(新郷村ふるさと活性化公社)’가 운영하는 ‘그리스도의 고장 전승관’도 신설되었 다.

전승관의 전시물에는 신고촌의 민속이나 생활습관에 관한 설명도 있으나 “그 리스도의 유서”와 같은 『다케우치 문서』에 근거한 그리스도 전설에 관련된 전시 물이 대부분이다. 무덤 맞은편에는 공원 부지의 제공자인 사와구치 가문의 묘지 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사와구치 가문은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한다. 전승관 에는 사와구치 가문의 조상들 사진도 전시되어 있는데 일본인 같지 않은 용모 가 그리스도의 후손인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무덤이 관광지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그리스도 축제(キリスト 祭)’다.⁸ 그리스도 축제는 1964년 헤라이미타케 신사(戸来三嶽神社) 신관의 주도로 시작된 그리스도를 위한 위령제다. 당초 지역의 상공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 으나, 현재는 다이사이초(大祭長)를 책임자로 하는 신고촌 관광협회의 주최로 매 년 6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된다. 2013년에는 50번째 축제를 맞이해서 약 750명 이 참가했다. 마을 사람보다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많았으며, 축제 당일에는 하치노헤 역에서 신고촌까지 버스가 임시로 운행되었다.

축제 프로그램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신도(神道) 형

⁸ 필자는 제49회(2012년)와 제50회(2013년) 그리스도 축제에 참가해서 인터뷰를 했다.



출처: 저자 촬영.

그림 2 그리스도의 고장 전승관

식으로 진행된다. 헤라이미타케 신사 신관이 축사(祝詞)를 올린 다음, 국회의원, 현의회(県議会) 의원, 시의회 의원 등의 내빈 축사가 이어지고 다마구시호우텐(玉串奉奠)이 이루어진다.

2004년에 개최된 제41회 그리스도 축제에는 당시 이스라엘 주일본대사도 참가했으며, 그때 대사가 보낸 예루살렘의 돌은 지금도 무덤 옆에 묻혀 있다.

축제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신고촌에서 전해지는 전통 예술 다나카 시시마이(田中獅子舞)를 올린다. 그 후 그리스도의 무덤을 주제로 한 단가(短歌)의 표창식이 열리고, 나냐도야라의 본오도리로 축제가 최고조에 달한다. 축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80분 정도다.

〈제50회 그리스도 축제 프로그램〉

개회사

다이사이초 인사

내빈 축사

신사(神事): 축사 주상(奏上)

다마구시호우텐



출처: 저자 촬영.

그림 3 그리스도 축제

봉납춤(奉納舞): 다나카시시마이
제17회 단가 포스트 입선가 표창식
봉납춤: 나냐도야라
고나고아협회장 사사
건배
폐회사

나냐도야라는 아오모리 현 남부에서 이와테 현(岩手県), 그리고 아키타 현(秋田県)에 걸쳐 전승된 본오도리다. 지역마다 선율이나 가사, 이용하는 악기에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도 신고촌의 나냐도야라는 가사의 의미가 불분명하게 전승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랑의 노래’라는 해석 등 여러 설이 있지만, 그리스도 축제에서는 히브리어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이 소개된다. 신고촌의 나냐도야라는 전쟁 이후 춤을 추는 사람이 감소하여 존속 위기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축제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써 보존회가 결성되었다(山田巖子, 2011: 28).

그리스도의 고장 공원은 신고촌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관광 자원이다. 신고

촌의 산업 건설과 상공관광그룹이 발행하는 관광 가이드 책자의 표지에도 그리스도의 무덤, 그리스도의 유서, 그리고 무덤 앞에서 추는 나나도야라의 사진과 함께, “역사의 로망과 그리스도의 고장”, “신비로운 마을로의 초대”와 같은 인상적인 문구가 쓰여 있다.

신고촌의 인구는 3,000명에도 못 미치나 신고촌 고장 활성화 공사에 따르면 한 해 관광객 수는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중 외국인 관광객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목적으로 신고촌을 방문한다. 한편, 아오모리 현은 2011년부터 ‘힐링여행’을 키워드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현 내의 ‘미스터리 존(ミステリーゾーン)’과 ‘파워 스팟(パワースポット)’으로 약 60곳을 선정해서 팸플릿을 만들고, 그리스도 무덤은 미스터리 존에서 소개한다.

2013년 6월과 7월에는 신고촌 관광협회와 지역 유지, 하치노헤 시 관광 컨벤션 등의 공동 주최로 ‘미스터리 버스 투어’가 개최되었다.⁹ 주로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신고촌을 소개하려는 시도였다. 오전 9시에 하치노헤 시를 출발하여 반나절에 걸쳐 신고촌 내부를 구경했다. 주된 명소인 그리스도의 고장 공원, 헤라이미타케 신사(공식 참배 후에 신관과 간담하면서 점심), 오이시가미 피라미드 세 곳을 둘러보았다. 투어 참가자에게는 출발 전에 그리스도 전설을 담은 팸플릿과 지도가 배포되었다. 그리고 신고촌 출신의 가이드가 동행하여 신고촌이 오컬트나 전기(伝奇)로 가득찬 곳이라는 점을 토대로 안내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무덤과 축제는 위서에 의해 탄생했으며 지역부흥을 위해 재이용되어 왔다. 이를 위해 신고촌은 그리스도의 무덤 이외에도 전설이나 전기를 관광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오이시가미 피라미드다.

오이시가미 피라미드는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이며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차로 약 10분가량 서쪽으로 이동한 곳에 위치한다. 이 피라미드는 도야와 기요마로에 의해 그리스도의 무덤보다 먼저 ‘발견’되었다. 그리스도의 무덤과 마

⁹ 필자도 7월 28일 버스 투어에 참가했다. 버스 투어 참가에 앞서 관계자에게는 연구가 목적이라고 미리 알려 인터뷰를 했다.

찬가지로, 오이시가미 피라미드와 관련된 전설은 없으며, 이 또한 위서인 『다케우치 문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고촌이 설치한 안내판에는 이 피라미드가 과거의 ‘신도(神都)’를 회상하는 장소라고 설명되어 있다. 거대한 바위들에는 각각 “호우이이시(方位石: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나 “세이자이시(星座石: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다)” 등의 팻말이 세워져 있다.

신고촌의 서쪽에는 기요마로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고대 태양 예배를 위한 신전”이라고 주장한 도와리아마(十和利山)가 자리잡고 있다. 도와리아마의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마요가타이(迷ヶ平)’는 과거에 ‘에텐 동산’이었다는 전설도 있다. 이 전설은 야마네 기쿠(山根キク, 1893~1965년)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야마네는 다이쇼(大正) 시대에 부인참정권운동을 활발하게 한 활동가였으나, 『다케우치 문서』나 기요마로의 영향을 받아 『빛은 동방에서(光りは東方より)』(1937년), 『그리스도는 일본에서 죽었다(キリストは日本で死んでいる)』(1958년) 등의 저서에서 헤라이 촌의 그리스도 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고촌의 그리스도 무덤은 명백한 위서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현재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오는 관광객 중 상당수는 호기심에 이 B급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해 오컬트 정보를 얻고 무덤의 위물성(僞物性)이나 축제의 진기성(珍奇性)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신고촌을 방문한다. 최근 그리스도 축제에는 코스프레(コスプレ)를 한 외부 참가자도 볼 수 있지만, 이들은 무덤의 진위와는 별도로 축제가 자아내는 독특한 공간을 체험하고자 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그리스도 무덤의 진정성을 믿는 관광객도 있다.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무덤 앞에 앉아 힘을 얻으려고 하거나 전승관 앞에 놓인 피라미드 모형 안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파워 스팟으로 인식하고, 무덤에서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사례도 있다. 해마다 그리스도 축제 당일에는 무덤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편이 꽃으로 장식된다. 이 꽃은 아오모리 현이 아닌 다른 지역

¹⁰ 현대 종교론적 관점에서 파워 스팟을 논의한 것은 岡本亮輔(2012, 69-85) 참조.



출처: 저자 촬영.

그림 4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

에 사는 고령의 여성이 해마다 보내온다. 이 여성은 과거 큰 병을 앓았을 때 쾌유를 기원하며 세계 곳곳의 성지를 순례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신고촌의 그리스도 무덤을 참배한 후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 이후 이 여성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스도 축제 당일에 꽃을 보내오고 있다.

이 일화는 그리스도 축제가 열릴 때마다 현장 방송을 통해 소개된다. 그리스도 일본 도래설이 믿을 만한 사실인지와는 별개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종교적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¹¹

IV. 가짜 라벨과 진짜와의 연결

관광객을 맞이하는 신고촌의 주민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¹¹ 또한, 미사와 기지(三沢基地) 소속의 미국 군인을 비롯해서 기독교도로 추정되는 외국인 참가자도 소수나마 볼 수 있다.

있는가? 무덤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거짓말이며, 관광 활성화라는 점을 제외하면 전혀 흥미를 가질 수 없는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후술하는 것처럼 『다케우치 문서』에 기재된 그리스도 일본 도래설이나 신도식 그리스도 축제가 갖는 진기함 때문에 노골적인 상업주의와 관광 전략이라는 비판이 신고촌 주민에게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신고촌이나 아오모리 현 직원, 마을의 관광화에 힘쓰는 청년 집단, 그리고 무덤 근처에 사는 주민의 입장은 복잡하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신고촌 관계자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이 가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무덤은 마을 외부에서 온 전설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로 촌장은 1989년에 간행된 『신고촌사(新郷村史)』의 서두에서 그리스도 무덤이 사실(史實)이 아닌 전설로 여겨진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

우리 고장 신고촌에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다케우치 문서』에 의한 그리스도의 무덤, 마요가타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이며 태양 예배소였다고 전해지는 오이시가미, 그리고 히브리어라고 간주되는 본오도리의 나냐도야라는 향후 사실을 추구하지 않고 전설로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新郷村史編纂委員会, 1989).

원주민들은 신고촌의 그리스도 전설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가짜이며 마을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가끔 생긴다. 신고촌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아오모리 현에 있는 ‘진기한’ 그리스도의 무덤과, 그것을 믿는 지역 주민이 마련한 ‘기묘한 축제’를 구경하러 온다.

그러나 마을 주민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믿지 않을 뿐더러 이들에게 그리스도 축제는 신고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한편, 관광객들은 그리스도 축제의 희귀함 때문에 신고촌에 모인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시간을 들여 구경하는 것은 다나카시시마이나 나냐도야라와 같은 지역의 민속예술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냐도야라는 그리스도 축제를 계기로 보존회가 결성되

었고 다나카시시마이도 매년 8월 헤라이미타케 신사에서 열리는 대축제에서 봉납된다. 즉, 이러한 민속예술들은 기본적으로 외부인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 축제는 신고촌의 전통적인 민속예술을 관광문화로 변용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나냐도야라와 관련한 촌장의 인터뷰 기사가 흥미롭다. 촌장은 한 기사에서 “지역의 여성단체가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관시켜 나냐도야라라는 본오도리를 창작했을 때는 마을 주민이 북을 사서 응원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¹² 나냐도야라는 신고촌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지는 본오도리다. 최근에 창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촌장의 말도 단순히 사실 오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무덤과 축제라는 ‘가짜’를 기반으로 나냐도야라가 창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그리스도 축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관의 축사 주상을 제외하면 그다지 기이하다는 느낌은 없다. 실제로 그 부분에 실망하는 관광객도 많다. 거듭 언급하지만, 이처럼 주최 측에서 무덤의 진정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신고촌 그리스도 전승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종교적 진정성을 느끼는 외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믿지 않는 원주민/믿고 있는 외부인’이라는 구도로 무덤의 진정성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축제의 주최자들이 그리스도의 무덤과 관련된 진정성을 모조리 부정하고, 그것을 지역 진흥과 관광객 유치에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도 아니다. 축제 진행을 맡은 직원이나 지역 유지들은 그리스도 전설과 별개의 진정성을 언급한다. 그들은 무덤에 그리스도가 매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중요한 누군가가 매장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 무덤이 있는 장소는 1935년 발견되기 전부터 마을 주민 사이에서 성지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처럼 조상이 소중하게 여겨온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축제를 관리하는 헤라이미타케 신사의 신관에 따르면, 무덤의 주인이 누구든 위령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축제가 개최된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가 무덤에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800만의 신들을 모시는 신

¹² http://www.ssf.or.jp/practice/commu/interview20_02.html(최종 검색일: 2016. 2. 20).

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한, 축제에서 진행요원으로 일하는 신고촌 직원은 그리스도 축제가 신도식으로 진행되는 이유를 “부처님보다 신이 더 높으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고촌에서는 신관이 ‘벳토우(ベトウ)’라고 불린다. 이 직원에 따르면 벳토우는 “마을에서 지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축제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무덤의 주인이 불분명하고 그리스도가 매장되어 있을 리는 없으나, 매장되어 있는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 마을의 조상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어 온 공양”을 우리가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이시가미 피라미드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오이시가미 피라미드도 기요마로에 의해 발견된 마을의 관광 명소이며, 버스 투어에서도 주된 목적지 중 하나다. 그러나 버스 투어에 동행한 마을 직원에 따르면, 원래 오이시가미 피라미드는 기요마로가 발견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이시가미사마(イシガミサマ)’라는 신사로 숭배해 왔다. 특히 70대 주민 중에는 이시가미사마까지 순례자를 안내하고 용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즉, 그리스도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도 기요마로의 발견 이전부터 마을의 성지였던 것이다.

이처럼 “실은 기요마로의 발견 이전부터 그곳이 성지였다”는 이야기는 또 있다. 예를 들어, 제50회 그리스도 축제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었던 직원이 거론한 마을 고유의 제사가 그러하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라는 필자의 질문에 직원은 역시 “그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신고촌의 일부 지구에서는, 우란분(盂蘭盆)을 처음 맞이하는 집에서 삼나무로 십자 모양을 만들어 마당에 세우고, 십자의 교차점에 불을 켜는 관습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관습은 모든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¹³ 다만 직원은 신고촌에 “독특한 선조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전에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장소를 조케이 천황(長慶

¹³ 2009년과 2010년에 신고촌이 실시한 민속 조사에 따르면 헤라이아자코사카(戸来字小坂)에서도 같은 관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이쇼(大正) 7년생 남성의 집에서는 첫 우란분을 맞이했을 때 막대기로 십자가를 만들고 현관 앞에 세워 두었다. 십자가 끝에는 삼나무 잎과 제등(提燈)을 달아 놓았다. 이것을 셋째 우란분을 맞이할 때까지 했다고 한다”(山田巖子, 2011).

天皇)의 묘로 나라에 신청했으나 흐지부지되어버렸다는 일화도 많은 주민이 언급했다. 이 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 현재는 조케이 천황의 묘가 다른 장소에서 전승되고 있다(개인 소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일화가 전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유래를 알 수 없는 성지를 “남조(南朝) 천황의 잠복”이라는 이야기와 연결해 진정성을 부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식 무대에서의 진정성 부정과 이면에서의 진정성 주장’과 같은 신고촌 주민들 모습의 배경에는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반발을 산 신문 기사가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 2012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지형조사 결과 그리스도의 무덤 주변은 ‘에미시의 성관(蝦夷の城館)’의 옛터로 추정되며, 무덤의 주인은 중앙 왕권에 반항해서 “독립을 지켜내고자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유대교도로부터 이단시된 존재였고 그리스도 축제의 기원은 “에미시의 기원과도 통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신고촌의 그리스도 전설에 관해 간략하게 다룬 내용이다. 기사는 “임의로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자는 무덤 속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끝을 맺었다(『朝日新聞』 2012. 5. 12).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반발했다. 예컨대 제50회 그리스도 축제에서는 직원이 문제가 있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고 공식적으로 발송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이라든지 “황당무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설보다는 에미시 설이 무난할 것이다.

실제로 주민 대부분은 그리스도 전설이 가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에미시 설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 진위와는 별도로 에미시와 관련되는 전설이 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지 않았다는 위화감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사에 대한 지역 유지들의 평가가 흥미롭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곳을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에미시의 성관’이라니, 들어도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무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에미시인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곳의 지명은 ‘그리스도의 무덤’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도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토기가 발견된 곳은 전승관 언덕 위쪽입니다. 그곳이 ‘야카타(籠)’라고 불렸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성관이 있었겠지만 흙무덤이 있는 곳에서 토기 발굴 현장까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흙무덤이 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처음으로 방문한 마을의 나카자토(中里) 취락에 있는 무덤에는 마치 그리스도의 무덤을 방불케 하는 두 흙무덤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묘석 역시 그 흙무덤보다 늦게 세워졌습니다. 즉 자신의 조상들 무덤을 보다 낮은 위치에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자리보다 높은 곳에 성관을 건축한 사람은 원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높은 사람이 매장되어 있으니 소중하게 모셔야 한다”고 선조대대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곳보다 높은 자리에 집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성관을 건축한 주인이 자신의 가족을 매장했다고 해도 집보다 낮은 위치에 무덤을 만들 생각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 기사는 이처럼 조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을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신고촌 주민 인터뷰).

신고촌을 포함한 지역의 관광 개발에 나서는 아오모리 현 직원은, 그리스도 축제는 나냐도야라나 다나카시시마이와 같은 민속예술을 선보이는 장임과 동시에, 이미 50년 동안 이어져 온 축제 그 자체가 “일종의 전통”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덤의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조상님이 소중하게 여겨온 장소이기 때문에 후세대에서도 그래야 한다”, “전설은 위사(僞史)에서 유래하지만, 조상이 축제를 계승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말을 종합해 볼 때,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전설이나 무덤의 진위보다는 전승과 축제가 전해져 내려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사물이나 장소에 결부된 감정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면 브라운의 투어리즘에서 “진짜인 가짜(genuine fake)” 이론을 참고할 수 있다(Brown, 1996). 브라운이 예로 든 것은 히로시마의 원폭 돔이다. 원폭 돔은 핵의 비참함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 인공적으로 반파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일부러 반파 상태를 유지하도록 공사했다. 그러한 의미로 보면 순수한 진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브라운은 원폭 돔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원폭의 비참함에 대한 진짜 공포를 환

기시킨다고 말한다. 즉, 사물로서는 가짜여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체험자에게 진짜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점에서 “진짜인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도 이와 같은 진정성을 유추할 수 있다. 무덤이나 축제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달이라는 ‘형식’ 그 자체가 조상과의 연결고리로 중시되는 ‘조상과의 유대’나 ‘지역의 고유성’, 다시 말해 혈연이나 지연이 그 장소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가짜여도 예로부터 공동체에서 소중히 다뤄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은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V. 가짜가 만드는 공동성

그리스도의 무덤은 역사적이고 종교적 진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명확히 가짜라는 견지가 중심이 되었지만,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상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에서 주관적인 진정성이 조성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현대종교론과 현대사회론을 원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둘러싼 신빙성의 구조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상에 대한 신념’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둘러싼 환경은 영국의 사회학자인 그레이스 데이비(Grace Davie)가 현대 영국의 종교 상황을 논한 “대리의 신앙(vicarious religion)”이라는 상황과 유비(類比)해서 이해할 수 있다 (Davie, 2000: 176-180).

데이비가 주목한 것은 교회 출석률이나 성직 지원자 수 등 기독교의 교세를 나타내는 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대사회의 신앙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양 각국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크게 감소하고, 현재의 교회 출석률은 10% 이하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보다 합리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 종교의 사회적 신빙성과 영향력이 무너진 ‘세속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논의되어 왔다.¹⁴

¹⁴ 근대 서구 사회의 세속화에 관한 고전적 연구는 Wilson(1976) 참조.

세속화가 진행되면 수십 년 후에는 근대사회에서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논하는 자가 있는 반면(Bruce, 2002), 데이비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전히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비에 따르면, 현대의 지극히 소수의 교회 출석자나 성직자는, 교회에 가지 않게 된 사람들을 “대표”해서 종교적 전통이나 기억을 보유하고 전달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리 신앙”은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소수의 “대리 교회 출석자”에 의해 기독교의 전통과 집합적 기억이 존속되고, 이로 인해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의 의미 부여의 기반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대리 출석자에 의해 의례나 신앙 실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는 거리를 두게 된 종교로부터 대리를 상정함으로써 가치관이나 정체성의 원천을 찾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선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신앙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안도감이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기독교를 존속시키고 있다.

분석의 수준과 문제, 관심 정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수자의 불신’을 전제로 한 종교 환경을 포착한 대리 신앙론은 그리스도 무덤의 사례에도 시사점을 준다. 신고촌의 주민은 그리스도 전설을 표면상 부정하지만, 마을 고유의 역사와 풍습이 존재했다는 점은 강조한다. 즉 이들의 화법은 “나는 믿지 않지만 누군가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것”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전설 그 자체는 믿지 않지만 무덤을 믿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형식은, 대리 신앙론과 같은 유형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념의 양상에 대해 일본의 사회학자인 오사와 마사치(大澤真幸)는 “신앙의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는 논의를 전개한다(大澤真幸, 2008: 231). 오사와의 관심사는 종교가 사적인 취미지만 기호로 간주되는 현대 다문화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의 존립 기반이다. 오사와에 따르면, 다문화주의 세계에서는 무슬림의 베일도 “일종의 취미(패션)”로는 허용된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자면 “보편적인 진리로서 교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과 같은 신앙은 허용되지” 않게 되고, “모두 믿는 척을 하”는 상태가 된다. 더 나아가 신(信)과 불신의 관계성이 뒤

바뀌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척을 한다는 것(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은— 믿고 있는 누군가를 전제로 한 이상—, 한 단계 더 발전해 생각하면 “믿는다는 것”이 될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세계에서 사람은 그렇다고 자각하지 못한 채 믿고 있는 것이다(大澤真幸, 2008: 232).

그리고 두 번의 전회를 수반한 신앙의 양상에 대해 오사와는 “아이러니컬한(アイロニカルな) 몰입”이라고 부른다.

아이러니컬한 몰입이라는 것은— 재차 확인하자면— 의식과 (객관적인) 행동 사이의 독특한 역립(逆立)의 관계를 가리킨다. 의식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해 아이러니컬한 거리를 취한다(“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의 경우, 그 대상에 몰입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실제로는 믿고 있다). 다문화주의적 사회란 사람들의 아이러니컬한 몰입에 의해 성립된다(大澤真幸, 2008: 233).

그리스도의 무덤을 둘러싼 주민들의 객관적인 행위 시의 진지함과 이야기할 때의 담백함 사이의 괴리는 대상과의 아이러니컬한 거리감 때문인 듯하다. 그리스도의 고장 공원이나 전승관의 정비와 건설, 신고촌의 직원들이 거의 총출동하듯이 참여하고 버스의 임시 운행이나 임시 주차장까지 준비하는 그리스도 축제. 객관적으로는 주민들의 ‘진지함’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설이 아니라, 전설의 계승 그 자체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대한 신앙은 조상이라는 타자에게 아웃소싱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성이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덤이 정체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오사와에 따르면 “공동성의 범위”는 “공유된 신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집합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공통적인 신념을 갖는 타자를 공통적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大澤真幸, 2009: 215).

그리스도 무덤의 유래는 가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 스스로도 이를 믿지 못한다. 실제로 축제에 관여하는 마을 직원이나 지역의 관광화에 주력

하는 지역 유지들처럼, 그리스도의 무덤이나 전설과 관련된 지식이 깊은 사람일 수록 그 위물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의 근거를 타자에서 찾게 되고 ‘조상으로부터의 계승’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VI. 결론

이 글에서는 ‘명백한 가짜’를 중심으로 한 관광 공간인 그리스도의 무덤에 대해 진정성이라는 문제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1935년에 발견되었다는 근대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마을 주민도 그 위물성을 인식해서 자주 언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관광 전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는 전설과 축제를 계승해 온 조상에 대한 애착을 찾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전승이나 무덤의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전해져 온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가치를 찾고 있으며, 필자는 이를 ‘주관적(主觀的) 진정성’이라고 한다. 주관적 진정성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타자의 신앙(信)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대리 신앙론이나 신앙의 아웃소싱론에서 초점이 되어 온 현대사회의 신빙성 구조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짜에 기반한 진정성이나 그것에서 발생하는 공동성은 현대의 관광문화 안에서 더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무대가 된 지역을 방문하는 등의 콘텐츠 투어리즘이 관광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우노 츠네히로(宇野常寛)는 콘텐츠 투어리즘으로 꾸며진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일부 허구화시켜 일상 공간을 채색하고, 익숙한 생활 공간을 특별한 장소로 성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宇野常寛, 2011). 신고촌에서 행해진 것은 바로 꾸며진 이야기에 근거한 일상공간의 성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무덤 사례는 지금 융성하고 있는 콘텐츠 투어리즘이며, 이벤트성 축제라는 현대 특유의 새로운 관광 대상을 생각하는 데 유용하다.

투고일: 2016년 3월 31일 | 심사일: 2016년 5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4일

참고문헌

- 『朝日新聞』, “まつろわぬ者” 蝦夷への祈り.” 2012년 5월 12일.
- 岡本亮輔. 2012. “場所の再表象—宗教ツーリズム論からみたパワースポット.” 『哲学・思想論集』 第37号, 69-85.
- _____. 2015. 『聖地巡礼—世界遺産からアニメの舞台まで』. 東京: 中央公論新社.
- 久米晶文. 2012. 『「異端」の伝道者 酒井勝軍』. 東京: 学研パブリッシング.
- 大澤真幸. 2008. 『不可能性の時代』. 東京: 岩波書店.
- _____. 2009. 『増補 虚構の時代の果て』. 東京: 筑摩書房.
- みうらじゅん. 2012. 『郷土LOVE』. 東京: 角川書店.
- 山田巖子 監修. 2011. 『新郷の民俗—青森県三戸郡新郷村』. 弘前: 弘前大学人文学部民俗学研究室.
- 星野英紀·山中弘·岡本亮輔 編. 2012. 『聖地巡礼ツーリズム』. 東京: 弘文堂.
- 笹川スポーツ財団. 『行政と村民一体となり村おこしを』. http://www.ssf.or.jp/practice/commu/interview20_02.html(최종 검색일: 2016. 3. 5).
- 小坂俊史. 2010. 『わびれもの』. 東京: 竹書房.
- 新郷村史編纂委員会 編. 1989. 『新郷村史』. 青森: 新郷村.
- 宇野常寛. 2011. 『リトル·ピープルの時代』. 東京: 幻冬舎.
- 斎藤栄. 2012. 『イエス·キリストの謎』. 東京: 徳間書店.
- 前島訓子. 2012. “ブッダ·ガヤー—仏教最大の聖地の発見と変容.” 星野英紀·山中弘·岡本亮輔 編. 『聖地巡礼ツーリズム』. 東京: 弘文堂.
- 土井清美. 「サンティアゴ·デ·コンポステーラ—変容する巡礼空間」. 星野英紀·山中弘·岡本亮輔 編. 『聖地巡礼ツーリズム』. 東京: 弘文堂.
- Brown, D. 1996. “Genuine Fakes.” In T. Selwyn, ed. *The Tourist Image: Myths and Myth Making in Tourism*. NY: John Wiley & Sons.
- Bruce, Steve. 2002. *God is Dead: Secularization in the West*. Oxford: Blackwell.
- Bruner, Edward M. 2004. *Culture on Tour: Ethnographies of Trave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avie, Grace. 2000. *Religion in Modern Europe: A Memory Mu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imothy, D.J. and S.W. Boyd. 2003. *Heritage Tourism*. Harlow: Pearson Education.

Wilson, Bryan. 1976. *Contemporary Transformations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井門富二夫·中野毅 訳. 1979. 『現代宗教の変容』. 京都: ヨルダン社).

Abstract

Authentic Fake, Diversification of Authenticity in Tourism Culture: The Case of Tomb of Christ in Japan

Ryosuke Okamoto Hokkaid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flect on the creation of the modern tourism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uthenticity and its defining process. Questions of how authentic the lure of tourist destinations are and on what basis it is defined is a critical issue that is directly linked with the value of the destination. This is because tourists are seeking a certain charm identified with the destination that cannot be found elsewhere. In this regard this paper focuses on the marketing of the obviously inauthentic “Christ’s Tomb” in Shingo Village of Aomori Prefecture. Shingo Village is striving for the promotion of tourism through resources that are not authentic, and the locals fully recognize the fakeness of these tourism resources.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at the local residents see the Christ’s Tomb as merely an economic resource for attracting tourists. Through interviews,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the residents harbor and share certain subjective authenticity about the Tomb. Revealed through their stories was an existence of a bond that tie themselves to an imagined community of their village and ancestors to which they were deeply attached. This was identified as the true source of their notions of authenticity of the Christ’s Tomb.

Keywords | authenticity, tourism culture, “Christ’s Tomb” in Shingo Village, fakeness